

# 갈라디아서 산책\_조현식목사

## 제1강 갈라디아서 개요, 서론\_6월 30일(화) 오후2시~3시

### 1. 성경이 쉬워지는 3가지 방법

#### 1). 먼저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기

성경이 쉽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다보면 정말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가능한 한 천천히 이것저것 살피면서 전체를 조망하여 자세히 읽다보면 그 내용 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도 풍성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성경은 쉽기 때문입니다.

#### 2). 자세히 읽으면서 아는 것에 집중하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더 관심이 가고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런 습관이 공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전체 본문을 골고루 살피십시오. 그러면서 본문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말하는 것 즉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자세히 반복해서 읽다보면 그 내용과 의미를 많이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메모해 놓으십시오,

#### 3).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자꾸 우리가 뭘 해야 하며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꾸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 마다 성경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분의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 등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솟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해석입니다.

### 2. 개요

#### 1). 바울서신(총13권)

로마서-고린도전·후서-갈라디아서-에베소서-빌립보서-골로새서-데살로니가전·후서-디모데전·후서-디도서-빌레몬서

##### 바울서신 배열 기준

- ① 가장 긴 성경부터 앞쪽에 배치
- ② 수신자가 같은 경우에 묶어서 배치
- ③ 공동체(교회, 지역)에 보낸 편지가 개인에게 보낸 편지보다 앞쪽에 배치

#### 2). 한눈에 보는 갈라디아서\_365통독주석 발췌

핵심	복음을 변호함 (1~2장)	복음을 설명함 (3~4장)	복음을 적용함 (5~6장)
사건	거짓 교사들을 저주함 사도권을 변호함	율법의 속박 복음의 자유	성령의 열매
주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복음은 참된 자유를 준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장소	남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이라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북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이라면 에베소 또는 마게도나야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기간	남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이라면 주후 49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북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서신이라면 주후 53~56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 3). 수신자, 발신자, 저작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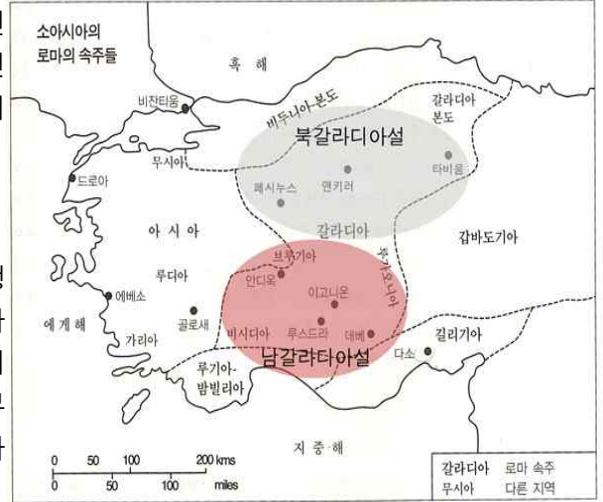
갈라디아서는 차분한 신학적 목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내의 위기상황을 해결하려는 목회자 바울의 다급하고 안타까운 투쟁의 기록입니다.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발신자 즉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1:1). 수신자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언제 썼고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가 라는 것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 ① 북부갈라디아설

갈라디아 지역이 소아시아의 북부지방이라고 말하며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나 아가야에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대상으로 볼 때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후서를 쓴 이후, 그리고 로마서를 쓰기 이전인 주후 53~56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② 남부갈라디아설

갈라디아 지역이 북부지방이 아니라 남부 즉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한다 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여행이 기록된 사도행전에 북쪽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부 갈라디아에서 사역한 모습은 너무나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주후 49년 정도에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배경

#### ① 은혜롭던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다.

평화롭던 갈라디아 지방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한 무리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의 아류일 뿐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며, 심지어 사도는 더더욱 아니라고 말 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을 왜곡하는데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 ② 바울 분노하다!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이 한 말은 몽땅 거짓말이었고, 바울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한 것에 분노합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소중한 복음을 전했고 잘 받아들였는데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망쳐 놓은 것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5). 바울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

#### ① 사도권을 증명해야 함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열두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깎아 내려야만 자신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 ②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 해도 언젠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자는 오히려 율법을 통해 자신의 더러움이 드러나 결국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③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가르침이 윤리적으로도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낳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믿음만 강조하니깐 행동은 자기 멋대로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 3. 본문연구

#### 1). 인사말 / 갈라디아서 1:1~5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은 자꾸만 바울의 권위를 깎아 내리려 합니다. 바울의 권위를 깎아 내려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직도 부정하고 그가 전한 복음마저도 거부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사도직을 변호한 것입니다.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가르치는 교리가 자신 혼자만 믿는 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모든 형제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교리적으로 오염되었어요. 그럼 편지에 굳이 교회라고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죠. 교회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교회라 부르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합니다.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났지만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4절은 복음의 핵심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둘째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주셨다.

셋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인사말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이 역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전한 진정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 2). 다른복음은 없다! / 갈라디아서 1:6~10

다른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율법교사들은 이거 너무 이상하다. 너무 구원 받는게 쉬운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안 되고 플러스알파인 할례와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다.

사도바울은 한 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만약 행위가 강조되거나 첨가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은혜가 될 수 없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은혜를 값 싼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데 그렇게 도 쉽게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안타깝다. 속이 타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

### 7절 다른 복음은 없으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의 목적은 단 하나 복음을 변질 시키고 사도바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은 자기의 행위로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합니다.

자기의 행위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은 공로주의 혹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X)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도 믿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O)

### 8절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8절과 9절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을 좋게 하는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한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 4. 결론 복음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첫째 다른 복음은 1장 6절에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가르침을 떠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무언가 첨가하거나 덧붙인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셋째 다른 복음은 저주를 부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한 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매일 지옥에 갈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죠. 율법대로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기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행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더 이상 열심히 봉사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겠네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참된 복음 안에 있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알게 된 자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잘 공부하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복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충분합니다.

과제 1). 다음 주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6절 읽어오기

2). 갈라디아서 필사하기 (8월 11일 까지)

# 갈라디아서 산책\_조현식목사

## 제2강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_7월 7일(화) 오후2시~3시

### 1. 성경이 쉬워지는 3가지 방법

- 1).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기
- 2). 자세히 읽으면서 아는 것에 집중하기
- 3).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 2. 본문연구

#### 1). 갈라디아서 1:11~24

바울은 자신이 전한 교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 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계시로 주신 것임을 밝힙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 바울 자신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행한 일과 그 직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호합니다. 자신에게 쏟아졌던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도권 뿐만 아니라 전하는 복음 역시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증명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 계시(reveal) :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작정(뜻과 계획)을 알리시는 것

제임스패커의 계시와 관련한 기본질문과 답변(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용어 17)

첫째\_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_계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_우리는 어떤 자세로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경청하고 감사함으로

<p><b>1절</b>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u>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u> 된 바울은</p>	<p><b>11절</b>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u>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u>  <b>12절</b>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u>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u></p>
<p>사도권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p>	<p>복음은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p>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내가 예전에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지키기 위한 열심 이었다.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 바울의 과거\_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디모데전서 1:13)

성경	내용
사도행전 8:1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마땅히 여김
사도행전 8:3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김
사도행전 9: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행전 9:2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건 내외지가 아니다.

※ Tip : 택정하시고 ▶ 택 같(라디아서) 하(한,1장) 시고(십오, 15절) =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회심 후 혈육과 의논하지 않음 :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사역을 시작함은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만나지 않고 3년간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교제함 :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명

**18절** 그 후 삼 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십오 일을 머무는 동안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라비아 3년 후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15일만 머무름,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만 만남 : 단순한 방문 목적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 대해 본적이 없지만 과거에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을 따를 뿐 아니라 열심히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마무리하며\_복음을 받은 사람(바울)의 특징

첫째\_과거의 삶을 재해석 합니다. (13,14절)

둘째\_과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 합니다. (15절)

셋째\_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만을 사모합니다. (16,18절)

## 2). 갈라디아서 2:1~10

바울은 여러 해 뒤에 어떤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는지를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갔던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 이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음을 선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한 세 사도들과 만났지만 어떤 새로운 지식도 더하여 받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는 것을 그 사도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1절** 십사 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2절** **게사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절 동일 예루살렘 사도들)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 사사로이 : 공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 비해 부족하고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달음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같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도들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음, 할례를 구원을 위한 필수행위로 생각하지 않음(바울과 똑같은 생각) 구원 얻는데 믿음 이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음을 위해 의도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옴

###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자꾸만 빼앗으려 하는 거짓 교사(믿음 외에 자꾸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함)

###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거짓교사들과 논쟁하고 싸우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함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뿐 아니라 복음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저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음

###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하다는 이들(2절 유력한 자들, 7절 도리어 그들은, 9절 야고보, 게바,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유력한 자들을 만났을 때 다른 어떤 새로운 교리를 배운 적도 없고, 바울이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고 하지 않음

###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말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도 바울을 인정한 것이죠. 마치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맡긴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만 복음을 전했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에서 일하도록 계획하셨고, 바울은 이방인들 중에서 일하도록 계획하셨기 때문

###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의 기원이 같다.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음이다.

### 9절 또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

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 기둥 같이 여기는 :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기초와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지탱하게 하심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 증표로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부탁, 바울은 이미 이전부터 구제사역에 힘씀

### 마무리하며\_복음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

첫째\_복음을 열심히 배우는 것(신앙고백서, 성경공부)

둘째\_교회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서로 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교제는 더욱 풍성해짐)

셋째\_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

3). 갈라디아서 2:11~16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친교의 악수를 한 뒤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베드로와 바나바도 함께 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과 식사를 합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이 일을 전혀 꺼리지 않았습니다. 소위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에서 온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밥그릇을 들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더 큰 문제는 베드로를 따라서 함께 있던 바나바도 자리를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바울은 대면하여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깎아 내리려고 혹은 개인감정으로 분노를 표출한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 책망함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때문에 식사를 중단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부로 교제(식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지 않고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의 행동은 유대인들과 바나바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안디옥 교회 전체가 자유의 복음을 잃어버림 위험에 빠짐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 다른 유대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믿는 바대로 행하지 않음을 책망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유대의식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야고보에서 온 이들의 방문에 베드로는 마치 유대인의 의식법을 지켜야 바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동함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16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바울이 밥상머리를 엮어 버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한 것은 복음을 위한 응전입니다.

만약 바울이 조용히 넘어갔다면 복음은 또 다시 변질되고 거저 주시는 은혜는 무시될 것이며, 의식법의 준수는 필수인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자유는 상실됩니다.

**마무리하며\_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면**

첫째\_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것(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둘째\_복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도 저항하는 것(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베드로를 책망)

**과제** 1). 다음 주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3장 22절 읽어오기

2). 갈라디아서 필사하기 (8월 11일 까지)

## 갈라디아서 산책\_조현식목사

제3강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_7월 14일(화) 오후2시~3시

### 본문연구

#### 1). 갈라디아서 2:17~21\_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

##### 내용요약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즉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교리를 따른다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될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아니, 우리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17~18절은 이런 비판에 대해 바울이 하는 대답입니다.

이후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대조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삶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삶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 삶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구원을 율법의 준수 여부로 판단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음에도 이미 지나가 버린 율법을 기준으로 이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사람을 완전히 의롭게 하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됩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없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내가 이제 와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의롭게 해 주신 공로를 허물어 버린다면, 내가 나를 법을 어긴 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기를 바라는 모든 기대에 대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준수를 통해 거룩해질 수 없지만, 오히려 내 의를 포기하고 율법으로 살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천 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론 바울 입장에서 십 수 년 전이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은 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없습니다. 내 자아는 끝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 우리의 미래 우리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구세주(구원자+주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지금 대적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논리 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된다.

**마무리하며\_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

첫째\_예수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둘째\_믿음은 참된 선행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신앙고백 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절대적존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에 절대로 죄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린 연약하기에 때때로 범죄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칭의는 의로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 의로운 자라고 선포됩니다. 이 선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 2). 갈라디아서 3:1~14\_믿음으로 받는 성령

### 내용요약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도 무엇 때문에 율법을 의지하게 됐는지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저주 아래 있게 하고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고, 모든 신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첫 번째 질문 :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 꾀다 :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시력을 손상시켜 분명하게 보이는 사물도 식별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뜻함

누가 너희를 유혹하여 누가 너희의 이해력을 그렇게나 부패시켜 너희가 마법에 걸린 듯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성령 받은 경험을 회상시킵니다.

###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나

두 번째 질문 :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심지어 나면서부터 걸지 못했던 자가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본 갈라디아 교인들은 믿고 들음으로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된 것이요. 그들은 이방인이라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기에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

###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 번째 질문 :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바울은 처음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 예수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성령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육체라는 말을 쓰며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야 하는데 어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느냐?

###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네 번째 질문 :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이 경험했던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바울의 경험이요. 나도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동일한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견디어 냈던 것이요.

###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나

2절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여기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갑자기 바울은 아브라함을 등장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순종에 의해서 의롭다 함을 얻었고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이삭을 바치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음을 증거 합니다.

※ 정하셨다 : ‘정확히 재어 결정하다’ 라는 뜻으로,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굳히는 것 = 하나님의 심오한 생각

**(창세기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에 근거를 둔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야 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의 행위를 좇는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방 민족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 할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유대인들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의 반대 의미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다 저주 아래 있는 이유는 ① 기록된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10절)

②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11절)

###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중보자에 대한 믿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에 있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합니다.

###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본질상 저주를 받은 것이며 ‘나무 형틀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저주는 죄인인 우리가 받을 저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과 의롭다 함을 얻게 됩니다.

###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죄 값을 지불하고 죽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죽으신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 마무리하며\_믿음으로 받는 성령

첫째\_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을 때 의롭다 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 것으로 시작 됩니다.

둘째\_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 3). 갈라디아서 3:15~22\_율법의 용도

#### 내용요약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죄에 대해 임시로 주어진 조항일 뿐이며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이 맺은 언약(계약)도 한번 맺으면 함부로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및 그 자손)사이에서 맺어진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도와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함부로 취소될 수 없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사백삼십 년 뒤에 주신 모세의 율법이 폐기하거나 헛되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는 이미 율법이 있기 사백삼십 년 전에 약속됐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연히 율법이 이 의를 무효화하지 못한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모든 사람이 범법했기 때문에(범법하므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중간에 더해진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_아브라함 이후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엄청나게 극악무도해져서 멸절하기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과 그것을 지키지 않을 시 주어지는 벌을 말씀하심으로 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둘째\_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바울은 율법이 한 중보자, 즉 모세에게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한쪽 편, 즉 한 분이신 하나님 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보자 모세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계시는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한 분 하나님이 중보자를 안 거치고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다.

**율법 : 하나님 → 모세 → 백성**

**약속(언약) : 하나님 → 아브라함(우리)**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과 약속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었다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드러냈고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즉, 사백 삼십년 뒤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더 믿고 싶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마무리하며\_율법의 용도

첫째\_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 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_율법은 예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자신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과제 1). 다음 주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4장 31절 읽어오기**

**2). 갈라디아서 필사하기 (8월 11일 까지)**

# 갈라디아서 산책\_조현식목사

## 제4강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호 ②\_7월 21일(화) 오후2시~3시

### 1. 본문연구

#### 1). 갈라디아서 3:23~29\_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

##### 내용요약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 봉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자 율법은 끝이 났고, 모든 신자는 차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됩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 믿음 : 은혜 언약 혹은 복음의 교리를 의미함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역할 :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 초등교사 : 로마의 귀족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책임진 노예나 고용한 지식인들을 가리킨다. 즉 아이를 인도하는 자로서 어렸을 때의 교육 전반을 맡았다. 그러나 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초등교사의 역할은 없어진다.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의 가치와 어떤 관계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행위로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으로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할 때보다 감사로 율법에 다가갈 때 더 순종하게 됩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구원역사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타난 시기에 율법의 시대, 즉 초등교사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 헬라어 '우케티'(οὐκέτι)는 '더이상...아니다'는 의미로 부정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로는 가장 강력한 의미를 나타냄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주어진 이후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 믿음이 온 이후 주어지는 축복 4가지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 첫 번째 축복 :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처벌 받는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감

(갈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롬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با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 두 번째 축복 :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 거듭나게 되면, 즉 그리스와 믿음으로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집니다.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 세 번째 축복 : 인종, 계층, 성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된다.

유대인 헬라인 : 문화의 장벽

종이나 자유인 : 계층(경제적)의 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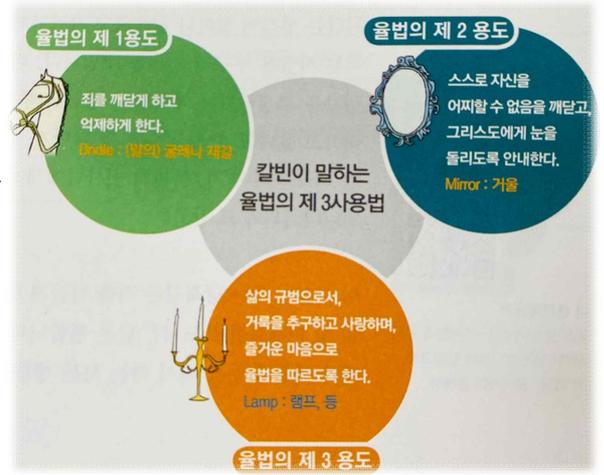
남자나 여자나 : 성별의 장벽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 네 번째 축복 : 아브라함의 복을 누림, 유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 성령을 받음 →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  
 →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음 → 약속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 →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복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됨



## 마무리하며\_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

첫째\_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둘째\_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

### 2). 갈라디아서 4:1~11\_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 내용요약

상속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잠시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두 양자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 결과로서 자녀가 갖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지만 다시 율법의 조항들의 종노릇하는 데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  
 어렸을 동안에는 : 4절의 때가 차기 이전의 시기

그 당시 로마법에는 성년이 안 된 상속자는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상속자일지라도 성년이 되기까지 어떠한 재산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상속자는 14세가 되기까지 아버지에 의해 임명된 가정교사로부터 배움을 받고 지도를 받았습니다. 25세가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부터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년기 훈련을 다 마치고서야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성인 된 증거로 새 망토를 받으므로 그다음부터 독자적으로 재산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 후견인과 청지기 = 세상의 초등학문 = 율법      ※ 아버지 =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고 그 때가 오기 전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헤매도록 허용하심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이와 같이로 시작하며 자신을 포함한 믿는 자들이 어렸을 때에는 즉 아직 복음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였다고 합니다.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매 : 1절의 어렸을 동안과 대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 즉 율법을 지켜야 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율법의 정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 ※ 속량 :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
- ※ 아들의 명분 : 죄에 매여 있는 삶에서 해방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 :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본적인 증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

※ 부르짖다(부르게) : 진심어린 외침을 의미

**7절**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전체 단락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접속사입니다. 1절 부터 시작된 예화를 끝냅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도,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더니

※ 너희 : 갈라디아 성도

그 때에는 : 예수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었기에 율법에 종 노릇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

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이제는 : 예수님을 믿음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 날과 달과 절기와 해 : 구약 율법에 헌신하는 모습들,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모든 노력 들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마무리하며\_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첫째\_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둘째\_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

### 3). 갈라디아서 4:12~20\_참 된 목회자

#### 내용요약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품었던 존경과 사랑을 상기해 줍니다. 바울은 참 된 목회자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제들아 :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바울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을 낮춘 바울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의미

**13절**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육체의 약함에는 두 가지 의미 ① 바울이 겪고 있던 신체적인 질병

② 복음을 위해 받았던 고난을 의미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결코 자신을 해롭게 하지 않고 환대함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 줄 정도로(가장 소중한 것) 큰 사랑을 보여주었다.

※ 눈이라도 빼어(눈깔사탕) : 눈 깔(갈라디아) 사(4장) 탕 이라도 빼어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무엇이 너희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나에 대해 나쁜 생각을 품게 만들었는가?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 준 것 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원수로 여기는가?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 : 복음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 거짓된 모습이다. 선한목적이 아니다.

너희를 이간시켜 : 거짓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갈라지게 하려 함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 결국 거짓 교사들(울법)을 따르도록 하는 목적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기 세력을 넓힌다고 질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으로 받는 것은 언제든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 나의 자녀들아 : ①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이다.

②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이 약하고 장성하지 못하여 어린 아이 상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 예수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 : 다시 복음으로 돌이키는 일은 쉽지 않다.(산모의 고통)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 여건이 마련되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 정당한 근거에 따라 칭찬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권고를 할 것이다.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 너희가 복음에 대한 신앙고백에서 떠나 유대주의로 가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 마무리하며\_참 된 목회자

### 첫째\_참된 목회자 바울

### 둘째\_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 할 일

#### 4). 갈라디아서 4:21~31\_두 언약

##### 내용요약

바울은 유대 교회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각각 하갈과 사라의 모형으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우리는 자유인임을 결론으로 말합니다.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 할례의 법과 기타 유대의식들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함

##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창세기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 창세기 21장 사라와 이삭

##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인간의 행동을 따라 낳은 자녀

약속을 따라 : 이삭은 약속을 따라 초자연적으로 난 자

##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고도의 풍유가 사용된 본문 두 여자를 예로 듦

##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	하갈
출생방법	약속을 따라	육체를 따라
장 소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시내산)
신 분	자유자	종
상 징	새 언약	옛 언약

##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기록된바 : 이사야 54장 1절

사라를 보라, 아이가 없어서 고통당하던 여인들이 오히려 역전되어 큰 기쁨을 누리지 않았느냐?

##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길, 믿는 이방인들은 “이삭과 같이 모두 약속의 자녀다”

## 29절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브라함 당시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이스마엘)가 성령을 따라 난 자(이삭)를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핍박을 받지만, 결국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이며 이삭과 같이 약속이 있는 자녀다.

##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차 여종과 그 아들(율법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던 자들)은 쫓겨나가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믿음으로 의롭게 된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인내하라.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참 교회의 자녀들이다.

## 마무리하며\_두 언약

첫째\_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음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_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된 유업을 받게 됩니다.

- 과제 1). 다음 주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 읽어오기  
 2). 갈라디아서 필사하기 (8월 11일 까지)

# 갈라디아서 산책\_조현식목사

## 제5강 복음에 근거한 실천적 권면 ①\_7월 28일(화) 오후2시~3시

### 1. 본문연구

#### 1). 갈라디아서 5:1~12\_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 내용요약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굳게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소망을 잃을 것임을 주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례를 전한 일이 없음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다른 이들을 규탄합니다.

####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 ※ 자유 :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율법에서 해방됨으로 얻은 자유  
(갈 2:4)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 ※ 종의 멍에 : 할례, 율법, 유전(전통)

#### 할례에 관한 베드로의 결론

(행 15:10~11)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는 것은 ① 할례뿐 아니라 율법의 의식법을 모두 지켜야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는 종의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 ②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온전히' 속량했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 할례 받는 것 하나 더한다고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예수 십자가 구원사역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의 어떤 행위를 더하여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 ※ 율법전체를 행할 의무 :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기를 구하거나 바라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됨  
(갈 2:21)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 ※ 은혜에서 떨어진 자 : 원래 자유의 위치 안에 서 있었으나, 지금은 이러한 자유의 위치로부터 나와서 스스로 멍에를 자신에게 지우는 것이 은혜로부터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여부를 말하는 것은 아님)

####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 ※ 성령으로 : 우리 안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 ※ 믿음을 따라 :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 ※ 의의소망 :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강력한 확신

####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도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자신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새 언약 아래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바울은 할례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을 위해 요구될 경우에만 반대합니다.

### 7절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 ※ 달음질 : 믿음의 길, 꺾대를 바라보고 달려감(그리스도의 십자가)
- ※ 누가 너희를 막아 : 율법주의자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
- ※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 진리로 악을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악이 진리를 막고 있는 상황

###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를 미혹하는 그 말은 하나님으로 부터 온 것이 아니다.

###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속담을 사용

#### 예수님의 가르침 '누룩을 주의하라'

(막 8:15)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 ※ 바리새인의 누룩 : 위선(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 외형적인 일에 집착
- ※ 헤롯의 누룩 : 음란(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 그의 죄를 책망하던 세례요한 참수

###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바울은 강하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것을 책망하지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합니다.

동시에 거짓 교사들을 향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 거되었으리니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했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래서 바울의 고난(박해)은 어찌 보면 제대로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말성경)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를 거세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기원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난 것이 아님 (8절) ※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 (갈 1:1, 11참고)
거짓 교사들의 활동의 결과 (교회 내의 침투한 이단)	① 이미 선포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7절) ②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 전체를 왜곡 (9절) ③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요동시킴 (10절) ④ 그리스도인들을 어지럽게 함 (12절)
거짓 교사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 (10절)

## 마무리하며\_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첫째\_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통한 행위 구원을 강조하다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둘째\_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셋째\_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나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 2). 갈라디아서 5:13~15\_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 내용요약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면 온 율법을 이룰 것이라고 권면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 ※ 자유 : ① 율법의 언약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유 (갈 3:13)
- ② 노예가 갖는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유 (눅 1:74)
- ③ 죄에서 벗어난 자유 (롬 6:7)

자유를 남용하여 죄를 범할 기회로 삼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자유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오히려 종이 되기 위함,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종노릇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14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롬 13:8)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요일 4:20)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율법의식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롬 13: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 ※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외적 행동으로 터져 나온 상황

### 마무리하며\_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신 것은 오히려 종이 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 3). 갈라디아서 5:16~26\_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 내용요약

사도 바울은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함에 대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으로 행할 것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다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 ※ 성령을 따라 행하라 : 너희 안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감화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라

- ※ 육체의 욕심 : 세상을 따르는 삶(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엡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영혼 안에는 두 소욕이 싸우게 됩니다.

- ① 하나님을 떠나 거짓됨과 악함을 근거로 살아가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
- ②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님의 원하심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 육체의 일 : 타락한 인간 본성과 그 본성의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성적인 타락	종교적 타락
음행 : 결혼 밖에서 갖는 성적 욕망과 행위 더러운 것 : 구체적인 음행의 생각과 음담패설 호색 : 성적인 죄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 중독된 상태	우상숭배 :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 주술 : 악한 영들의 힘을 얻으려는 모습
인간관계	무절제
분쟁, 시기, 분냄, 투기 : 마음의 죄 원수 맺는 것, 당 짓는 것, 분열, 이단(분파) : 행하는 죄	술취함 : 성령님의 지배와 통제를 거부함 방탕함 :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바울은 육체의 일들(복수)이라고 말한 반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말합니다.

즉, 열매가 여러 가지라기보다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맺게 되는 열매의 아홉 가지 특성입니다.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이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b>사랑</b> 하나님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b>희락</b>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누리는 만족감, 기쁨	<b>화평</b>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세상에서는 늘 걱정과 염려가 존재)
<b>오래참음</b> 인내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뜻 기다리기	<b>자비</b> 공휼이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	<b>양선</b> 선한행실, 자비의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b>충성</b>	<b>온유</b>	<b>절제</b>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삶	격한 감정, 성급히 화를 내는 것 마음의 경솔함을 삼가는 것	마음을 지키는 방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도 있게 사용하는 것
-------------------------------	--------------------------------------	---

###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 ※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며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 '수동태' 로 표현된 객관적인 사건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24절은 '능동태'로 표현된 신자의 주관적이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행동

###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이후의 삶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 ※ 헛된 영광 : 육체의 일

## 마무리하며\_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 첫째\_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정확히는 성경전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 둘째\_날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은 우상숭배, 미움, 다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삽시다. 내 안에 있는 음란함 더러움 악함 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 되게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 과제 1). 다음 주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읽어오기  
2). 갈라디아서 필사하기 (8월 11일 까지)  
3). 6강 종료 후 강사에게 소감문자 보내기 (8월 11일 까지)

## 갈라디아서 산책\_조현식목사

### 제6강 복음에 근거한 실천적 권면 ②\_8월 4일(화) 오후2시~3시

#### 본문연구

##### 1). 갈라디아서 6:1~10\_짐을 서로 지라

###### 내용요약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고, 서로 짐을 져주라고 말합니다. 자만심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후하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 **범죄** :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공로로 내세우는 종교적 행위나 선행들

(고전 5:11)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 **드러나거든** : 누군가가 지켜보다 범죄 현장을 잡음, 오랜 기간 반복되다가 들통 남

※ **신령한 너희** :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성숙하고 경험이 많으며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

※ **바로잡고** : 수술용어, 바른 진단을 하고 수술하여 원위치 시키는 것

바울은 이런 죄인에 대하여 신령한 자 곧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잡도록 권면합니다. 이 때 반드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하며 자신도 이런 시험에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짐(헬라어\_바로스, βάρος)** : 크고 무거운 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2절과 5절이 똑같이 짐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에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2절은 크고 무거운 짐, 5절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는 짐을 의미합니다.

※ **그리스도의 법** : 사랑의 법,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법,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이루는 것

(요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성취하라** :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교회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3절**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 **스스로 속임** : 착각, 환상에 빠지다

서로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이 외적인 면이라면 이제 사도는 내적인 면을 말합니다.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뭔가 중요한 존재(또는 죄 지은 사람보다 뭔가 나은 존재)로 생각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 시험해보고 확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행실을 점검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에 집착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 **자랑** :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랑'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원문은 '기뻐하다'로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면 이는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 **짐(헬라어\_포르티온, φορτίον)** :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는 짐  
신앙생활은 서로 종노릇하며 섬기는 짐과 함께 각자 개인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입니다.

###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관계(목양관계)

※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 함께 교제하라, 사랑하라, 아껴주라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그만큼 가르치는 자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 **스스로 속이지 말라** : 미혹을 받아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

※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 바보 취급하지 마라

※ **심음과 거둠의 원리** :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나라에서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다.

###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 **심는** : 멈추지 않고 계속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일은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거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는 자를 뜻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자입니다.

###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 **낙심하지 말라** :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라, 힘을 잃지 말라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은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이 동반됩니다.

※ **때가 이르매** :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지만 그 때는 모두 다르다.

###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 **기회** : 기회가 오면(X), 기회를 가지고 있는 바로 지금(O)

※ **착한 일** :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과 은혜를 베푸는 행위(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 다음)

우리 앞에 착한 일을 할 대상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능력을 주실 때마다를 뜻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이웃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_짐을 서로 지라

### 첫째\_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① 죄 지은 자들을 바로 잡아 주라 :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끔 돕는 일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하며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게끔 기도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② 자신을 돌아보라 :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바라보며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 둘째\_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그 다음은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다 다르기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2). 갈라디아서 6:11~18\_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내용요약**

사도 바울은 할례를 전하는 자들의 육신적인 생각을 드러내 보이고, 자신은 세상을 개의치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축복기도로 편지를 마무리 합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 **큰 글자** :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절하기 때문에  
대필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썼다는 것은 이 서신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역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 아주 경건한 사람들처럼 세상에 그럴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짓교사(위선)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포함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인정하면 박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키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 5: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할례 받을 것만을 강요합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게 하려는 목적은 단 하나 자신들의 할례를 자랑하고, 그것이 구원이 조건이 됨을 자신의 공로임을 드러내는 일이며 자신들을 추종하는 세력을 넓히려 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 **그러나 내게는** : 바울의 각오, 어떠한 박해 가운데에서도 오직 생명의 진리인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고전1:23-24)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가 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도 회심 전에는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바라며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생각과 주장에 의하여 움직이는 불신앙적인요소를 의미합니다.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 새로운 피조물과 동일한 단어(고후 5:17)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 **규례** : 원어로 모든 것의 기준 혹은 측량하는 데 사용하는 척도  
기독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측량하는 척도는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 밖에 없습니다.

**17절**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 **괴롭게 하지 말라** :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 할례에 대한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라  
※ **예수의 흔적** : 바울이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복음 때문에 받은 핍박으로 말미암은 상처 일 것입니다.

(딤후 4:7)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행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

# 세광온라인바이블(Sekwang online Bible)강의안

## 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 직분을 의심 받고 있으며 그가 전한 복음이 부정되고 있는 현실로 인해 크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갖게 된 흔적(상처)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이 참되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축복을 전합니다.

## 마무리하며\_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라

### 첫째\_지금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세상’ 곧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자기 의로 삼는 모든 어리석은 생각에서 떠나게 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주의 십자가 만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 둘째\_내가 지닌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은 그가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은 적이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 것을 버린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입니다.

요약	관련 구절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b>대속물</b> 이 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b>새로운 삶</b> 으로 인도합니다.	(1:4,2:20,3:13)
복음의 기원은 <b>오직 하나님</b> 에게만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도 사람으로 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b>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b> 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1:1,11~12,15~20)
복음은 율법의 행위(할례)가 아닌 <b>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며</b> 믿음은 칭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1:4,2:20,3:13)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추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1~3)
할례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으며 결국 율법의 저주아래 놓이게 됩니다.	(2:12~14,16) (3:10,4:10,5:3)
구약성경(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b>믿음으로 구원 받았음을 증거</b> 합니다.	(창15:6, 합2:4)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b>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b> 그로 인해 <b>그 육체를 포기한 신자</b> 에게 있습니다.	(5:24,6:14)
성령은 <b>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능력과 인도의 원천</b> 이며 성령의 사역은 사랑과 믿음을 낳습니다.	(5:6,16,18,25)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주인이신 <b>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박해를 기꺼이 감수</b> 합니다.	(1:10,6:12,14)

- 수료기준(8월 14일까지) : ① 6주간 강의 듣기  
 ② 갈라디아서 필사하기  
 ③ 소감문자 보내기

※ 지난 6주간 부족한 사람의 강의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